

헬기 사격·전투기 출격대기 실제 접근 강제조사권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⑤미완의 진상규명

지난 9월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5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헬기사격은 사실로, 전투기 출격대기는 결론을 유보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훈령을 토대로 꾸러진 특조위는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헬기조사 등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했다.

지난 7일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가 밝힌 조사 규모는 자료 62만쪽, 군 관계자·목격자 120명,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등이다.

특조위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종사가 어떠한 경로로 이동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 몇 발을 쏘았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강제조사권 부재, 자료의 폐기·왜곡, 조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투기 출격 대기와 관련, 핵심 인물인 5·18 당시 김리군 육군군사연구실장, 김준봉 2군사령부 작전

핵심 증인들 증언에 비협조적 미국 정보기관 자료 확인 못해 자료 폐기·왜곡·조사시간도 부족 5·18 특별법에 '마지막 기대'

참모, 이회근 공군참모총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건강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규명에 미온적이었다는 게 특조위의 전언이다.

특조위 조사는 사실상 국내에 국한된 것이어서 입체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사이에 오간 문서, CIA·NSA 등 미국정보기관의 기밀 문서, 송정리 미군기지 관련 일지 등 미국측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주도로 만들어진 5·18왜곡조직 '80위원회'의 존재도 확인했다. 하지만 안기부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80위원회' 관련 자료가 없다고 특조위에 회신, 구체적 활동 내역은 밝힐 수 없었다. 또 특조위는 또다른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 참여가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조사기관과 권한의 한계로 전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명확한 진술과 증거 없이 정황만을 조사한 탓에 특조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헬기 사격에 대해 A위원은 "헬기 사격 가능성은

있으나 반드시 있었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군 문서 등을 통해 헬기 사격 명령은 있었으나 조종사들은 한결같이 직접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이 위원회는 탄흔이 너무 밀집돼 반드시 헬기 사격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들은 광주를 타깃으로 한 전투기 폭격 계획은 사실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계엄군의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로 시민들이 무장을 시작한 1980년 5월 21일~22일 광주의 급박한 상황과 같은 날 제1전투비행단 등에 내려진 전투기 무장장착 대기 지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5월22일 유병현 함장의 장의장인 임장익 전 대령에 대한 위령 미군사령관의 대량피해 우려 발언, 황영시 계엄사령부 참모총장의 '10만명 피해설' 등을 종합하면 신군부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광주를 폭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특조위 조사가 성과는 있었지만 속시원한 결론은 못 내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특별법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며 "특별법안에 의해 꾸러지게 될 진상규명위원회에는 실제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반드시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예방 OX 퀴즈 광주서부경찰서 풍암파출소(소장 노경희·왼쪽) 직원들이 19일 광주시 서구 윤리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돌발 OX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살레시오고~광천터미널' 마을버스 노선 신설

북구, 28일 777번 개통식

광주시 북구는 "21일부터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부터 광천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777번) 노선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버스노선은 '살레시오고(기점)~일신·일동초교~고려중~비엔날레전시관 입구~경신·중앙여고~문화예술회관~광천터미널(종점)'로 총 10.8km 구간, 27개 정류장을 거친다.

운행은 기·종점 출발시간 기준 첫차 오전 6시, 막차는 밤 10시20분이며, 운행간격은 10분에서 25분 이내로 25인승 중형승합차 7대가 노선에 투

입된다.

요금(일반 1400원·청소년 1000원·어린이 500원)과 환승체계는 기존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1월 ㈜광남고속관광을 운송 사업자로 최종 등록하고 지난달 31일 마을버스 정류소, 차고, 카드 단말기 등 개통에 필요한 시설들을 완비했다.

오는 28일 마을버스 기점인 살레시오고 정류장 앞에서 ㈜광남고속관광 주관으로 신설 노선 운행에 따른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21 수능 수학 출제범위 이과 줄고 문과 늘어

교육부 이달말 확정...국어 언어와 매체·과탐 II 포함 가능성 커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에서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가 기존보다 줄고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서울교대에서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목과 교과서,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올해 고교 1학년부서는 예전과 다른 교과서로 수업한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기존과 같지만 출제범위는 다소 달라진다.

출제범위를 연구해 온 정책연구진은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 수학 I,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넣고 기하를 빼는 안을 제안했다. 기존 수능과 동일하게 난도가 높은 기하까지 출제되면 사실상 모든 일반선택과목에다 기하까지 배워야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주로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 I·II, 확률과 통계를 출제범위로 하지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수학 I이 포함되면 삼각함수 등 일부 새로운 내용이 수능에 출제돼 추가 학습 부담이 우려되나 시·도 교육청,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포함하기로 했다.

과학탐구영역의 경우 과학 II(물리 II·화학 II·생물 II·지구과학 II)가 진로선택과목이지만 수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다수의 교육청, 교수·교사 등 전문가, 학부모가 설문조사 과학 II의 수능 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어영역은 언어와 매체(1-1안), 언어만 출제(1-2안),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2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영어·사회탐구·직업탐구 영역의 출제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이날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를 확정한다. EBS 연계율의 경우 현행과 같은 70% 선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희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4, 해질 18:19, 달돋이 09:44, 달질 22:33

성큼 다가선 '봄'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 하는 고기압의 영향 받아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11	보성	맑음	-3/10
목포	맑음	-1/8	순천	맑음	0/12
여수	맑음	2/12	영광	맑음	-4/7
나주	맑음	-4/10	진도	맑음	-1/7
완도	맑음	1/12	전주	맑음	-3/9
구례	맑음	-4/11	군산	맑음	-4/7
강진	맑음	-2/12	남원	맑음	-5/10
해남	맑음	-3/10	축산도	맑음	2/6
장성	맑음	-4/9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남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서부	남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0.5~1.5
	남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남바다(남)	북~북동	1.5~2.5	북~북	1.5~2.5

◇생황지수

☀	높음
☁	매우높음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05, 22:28	04:53, 17:13
여수	05:31, 17:58	11:53, --:--

◇주간 날씨

날짜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날씨	☀	☀	☀	☀	☀	☀	☀
기온(℃)	-1/7	-4/8	-2/10	03/9	-1/10	1/10	1/10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주)별고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 볶음용멸치 250g **6,100 원**
- 국물용멸치 200g **4,000 원**
- 볶음용멸치 500g x3 **33,000 원**
- 볶음조림용멸치 500g x3 **33,000 원**
- 진미액 250g **3,800 원**
- 해산물세트 **17,000 원**

(주)별고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별곡읍 함암길 185-95 Tel. 061)745-9907

- 꼬막볶음교초장 **5,850 원**
- 왕꼬막통조림 간장 **2,250 원**
- 꼬막통조림 소금 **2,700 원**
- 꼬막통조림 간장 **2,700 원**

살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어시물길 10 Tel. 1577-8885

- 히팅록 소고기맛 **4,500 원**
- 제품 설명: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 가능합니다. 물을 붓고 졸을 끓여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아오모더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 히팅록 치킨카레맛 **4,500 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살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아라움 대표 김미선, 살롬산업(주) 대표 김경애, 여수안포어촌계 계장 이희한, 무안구로어촌계 계장 정경태, 해남송호어촌계 계장 중앙배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별고꼬막 061)745-9907
살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www.jnbada.or.kr